

수 학 보 고 서

성 명		학과 / 학번	
파견국가	프랑스	파견학교	Universite Catholique de Lille
파견기간	2022. 01 . 03 . ~ 2022 . 07 . 10 (총 7 개월)		

해외에서의 수학기간이 끝나고 한국에 입국하면 당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교류원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E-Mail: mju_outbound@mju.ac.kr)

추후에 파견되는 학생들의 편의와 이해를 돕고 국제교류원에서도 참고할 예정이니 번거롭더라도 성실하게 작성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량은 제한이 없습니다.

1. 준비과정

-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지원하기까지의 준비내용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 교수님의 추천서 및 제 개인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이 두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계들은 별 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 파견학교 지원 과정

파견교 리스트에서 제가 원하는 학교를 골라야했었는데 해당 학교에 들어가 교환학생을 위한 과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이는 하루 전체를 요구할 정도로 시간이 정말 오래걸렸고 다행히 명지대 국제교류처에 사이트가 잘 나와있어서 할 수 있었습니다.

- 파견국가 출국 준비과정 (비자, 항공권, 준비물 등등)

비대면이고 전 본가가 광양이라 비자를 준비하는데 너무 벅했습니다. 게다가 기말고사 시험 기간에 비자 준비를 해야했고 관련 서류 업로드 및 작성이 힘들었습니다. 비자와 관련해서는 자료가 드물었고 네이버에 찾아가면서 했습니다. 항공권 및 준비물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알기에 시간을 투자하면 금방금방 했지만 비자는 직접 서울에 방문해서 제출을 해야했고 또 미리 예약을 해야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비자 관련 내용이 잘 명시되었더라면 수월했을 것 같습니다.

2. 파견학교

- 공항픽업 & 오리엔테이션

공항픽업은 없이 직접 기차를 타고 Lille로 가야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제가 두 개

중에 하나를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학교 내부에 강의실 및 건물들을 알려주었고 다른 나라에서 온 교환학생 친구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수업 & 학교활동

수업은 교환학생들로만 이루어진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애들의 수업 안에 교환학생이 들어가 수업을 듣는 식으로 구성되어있었습니다.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었고 조별과제를 요구하는 과목들도 있었습니다. 유인물은 교수님이 나눠주시고 강의 자료들은 학교 사이트에 올라와있기 때문에 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 기숙사 및 학교 내 편의시설

조그만 카페 및 매점이 학교 내부에 있었고 별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기숙사는 International Foyer이라는 기숙사를 사용했는데 공용 세탁과 공용 주방이 있었고 비교적 별 어려움 없이 시설을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별다른 특별한 점은 둘 다 없었습니다.

3. 주변 환경

- 지역 정보

Lille이라는 도시는 프랑스 북쪽에 위치하며 꽤 큰 도시로 교통편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벨기에까지는 TGV 고속열차를 통해 30분, 파리까지는 1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도 두 개 노선이 있어 릴 내에서도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 학교 주변 정보

학교 주변은 대부분 기숙사들과 약간의 상가들이 위치하여 있고 본 시내는 학교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가면 나옵니다. 때문에 학교의 위치는 매우 적합하고 옆에 커다란 공원 및 동물원이 있어 산책하기에 좋습니다.

4. 비용

- 등록금(해당학생만)

- 기숙사 비용(학기당)

519.24유로(월)

- 추가비용(Books, Insurance, Etc.)

보험 및 비자 발급을 위한 비용 등을 모두 합치면 대략 50만원 정도 입니다.

- 생활비

프랑스 물가가 거의 비싼 편이고 물도 사서 마셔야 하기 때문에 여행 다니는 비용, 유희, 쇼핑을 제외하면 700만원 정도 든 것 같습니다.

- 한달 평균 지출비용

100만원

5. 교환학생 기간 동안 느낀 점

유럽은 다양한 나라들이 서로 인접해 있어서 여행 가기가 편해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제 본가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는 비행기 가격이 프랑스에서 이탈리아를 가는 비행기 가격보다 비싼 것을 보고 제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때문에 여러 문화를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더 편한 점 유럽의 더 편한 점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BTS, 블랙핑크 등 한류의 여파로 많이 크다고 생각한 우리나라는 아직 서양에서는 일본보다는 못하는 나라로 있다는 것을 느꼈고 아직 많이 작은 나라로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남 눈치 많이 보는 한국인의 시야에서 서양인들은 되게 개방적이면서 그 개방적인 사실에 남 눈치를 안 본다는 점도 알게 되었고 그것 외에도 많은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제 시야가 한 층 넓어진 것 같아 이런 교환학생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사는 것에 대해 남들에게도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6. 사진 (학교시설 위주의 사진을 5장 이상 첨부해주세요)



